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전주연 · 신명숙¹ · 김수경²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²신흥대학교 치위생과

Effect of self-leadership on stress cop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u-Yeon Chun · Myong-Suk Shin¹ · Soo-Kyung Kim²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¹*Dep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²*Dep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d the stress-coping methods us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self-leadership to provide basic data for students' self-leadership training programs.

Methods :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to measure their self-leadership in six categories—self-expectation, rehearsal, goal-setting, self-compensation, self-criticism, and constructive thinking—and, in four categories—problem-centered coping, social support coping, emotional coping, and wishful thinking coping—on a scale of 1 through 5.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overall average score of self-leadership was 3.34 and the scores for each subfactor were 3.82 for self-compensation, 3.57 for self-expectation, 3.44 for rehearsal, 3.42 for goal-setting, 3.30 for self-criticism, and 3.12 for constructive thinking. The overall average score of stress-coping was 3.29 out of 5 and the scores for active coping were 3.14 for problem-centered coping and 3.38 for social support coping and for passive coping were 3.69 for wishful thinking coping and 2.95 for emotional coping. Self-leadershi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motivation for application. The six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and problem-centered coping and wishful thinking coping, the sub-factors of stress-coping,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Self-compensation and constructive thinking were significant factors of self-leadership that affect stress-coping.

Conclusions :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was found that Dental Hygiene students' self-leadership is related to the use of efficient stress-coping.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approaches to improve their self-leadership so they can efficiently cope with various stressors that they will face after finding job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2):285-292)

Keywords : self-leadership, stress-coping

색인 :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대처방식

- ▶ 본 연구는 2010년도 원광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린다.

1. 서론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 사회 조직 전반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현대의 조직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¹⁾.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한 두 사람이 지시·통제하던 방식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초점을 맞춘 셀프리더십에 주목하게 되었다²⁾.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 통제 시스템을 자극하여 스스로 동기유발하게 하는 자유의지의 실현을 도움으로써 인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인지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³⁾.

최근 의료 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영역 확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의 리더십은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처방식을 보일 수 있다. 대처방식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자 판단으로⁴⁾, 스트레스 기간 동안 개인이 그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⁵⁾.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셀프리더십은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으로 이는 치위생과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하고 증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이나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⁶⁻¹¹⁾ 등이 보

고되었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정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구체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을 확인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여 향후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지역 3개 대학의 치위생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배부한 270부의 설문지 중에 설문응답이 불완전한 58부의 자료를 제외한 21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Manz¹²⁾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김¹³⁾과 박¹⁾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6개 영역으로 각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2.2.2.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는 Folkman과 Lazarus와¹⁴⁾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척도에 기초하여 김¹³⁾과 박¹⁾이 이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4개 영역으로 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기술통계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대처방식 관련성은 ANOVA로 분석하였다.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별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보통이다'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하다' 44.8%, '건강하지 못하다' 5.2%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전공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51.9%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2.1%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지원동기로는 취업률이 높아서 51.9%, 전문직

업이므로 21.7%, 부모님이나 지인권유로 16.0%, 성격에 맞춰서 5.7%, 적성에 맞기 때문에 4.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셀프리더십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4 \pm .50$ 점이었고, 구성요인별 자기보상 $3.82 \pm .74$ 점, 자기기대 $3.57 \pm .67$ 점, 리허설 $3.44 \pm .67$ 점, 목표설정 $3.42 \pm .77$ 점, 자기비판 $3.30 \pm .83$ 점, 건설적 사고 $3.12 \pm .69$ 점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9 \pm .40$ 점이었고, 적극적 대처로 문제중심 대치는 $3.14 \pm .58$ 점, 사회지지 대치는 $3.38 \pm .74$ 점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로 소망적 사고 대치는 $3.69 \pm .52$ 점, 정서중심 대치는 $2.95 \pm .59$ 점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대처방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Health state	Good	95	44.8
	Normal	106	50.0
	Bad	11	5.2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ied	13	6.1
	Satisfied	110	51.9
	Moderate	68	32.1
	Unsatisfied	19	9.0
	Very unsatisfied	2	0.9
Application motivation	Job	110	51.9
	Inducement	34	16.0
	Grade	12	5.7
	Aptitude	10	4.7
	Profession	46	21.7
Total		212	100.0

Table 2. Degree of self-readership, stress-coping

Variables			Mean	SD
Self-readership	Behavior strategy	Self-expectation	3.57	.67
		Rehearsal	3.44	.67
		Goal-setting	3.42	.77
		Self- compensation	3.82	.74
		Self-criticism	3.30	.83
	Cognitive strategy	Constructive thinking	3.12	.69
	Total		3.44	.50
Stress-coping	Active coping	Problem-centered coping	3.14	.58
		Social support coping	3.38	.74
	Passive coping	Wishful thinking coping	3.69	.52
		Emotional coping	2.95	.59
	Total		3.29	.40

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p=.001$)와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4$).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군에서 3.67점으로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지원동기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성적에 맞춰서’라고 답한 군에서

3.79점, ‘적성에 맞아서’라고 답한 군에서 3.7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elf-readership, stress-cop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lf-readership			Stress-coping		
		M±SD	F	p-value	M±SD	F	p-value
Health state	Good	3.43±.51	.510	.601	3.29±.42	.173	.841
	Normal	3.44±.50			3.28±.38		
	Bad	3.59±.53			3.36±.50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ied	3.67±.66	4.762	.001	3.40±.64	1.221	.303
	Satisfied	3.53±.45			3.32±.38		
	Moderate	3.35±.46			3.26±.38		
	Unsatisfied	3.26±.56			3.17±.39		
	Very unsatisfied	2.47±1.29			2.95±.70		
Application motivation	Job	3.37±.45	3.979	.004	3.27±.39	1.299	.272
	Inducement	3.33±.49			3.27±.42		
	Grade	3.79±.57			3.51±.43		
	Aptitude	3.76±.42			3.42±.46		
	Profession	3.54±.56			3.26±.4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Self-expectation(v1)	1									
Rehearsal(v2)	.303**	1								
Goal-setting(v3)	.474**	.550**	1							
Self-compensation(v4)	.440**	.434**	.542**	1						
Self-criticism(v5)	.075	.363**	.276**	.322**	1					
Constructive thinking(v6)	.423**	.439**	.480**	.368**	.225**	1				
Problem-centered coping(v7)	.494**	.483**	.605**	.463**	.244**	.445**	1			
Social support coping(v8)	.255**	.165**	.309**	.417**	.097	.291**	.304**	1		
Wishful thinking coping(v9)	.209**	.249**	.288**	.407**	.265**	.259**	.260**	.419**	1	
Emotional coping(v10)	.055	.094	.056	.165*	-.022	.163*	.032	.195**	.315**	1

* $p < 0.05$, ** $p < 0.01$

3.4.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각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각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6개 구성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인 문제중심 대처법, 소망사고 대처법 2개 구성요인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셀프리더십 구성요인 중 자기비판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사회지지 대처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정서중심 대처법은 셀프리더십 중 자기보상과 건설적 사고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5. 셀프리더십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보상($p = .000$)과 건설적 사고($p = .003$)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self-leadership on stress coping

	B	SE	Beta	t	Sig	
(Constant)	1.734	.161		10.772	.000	$R^2 = .382$
Self-expectation	.040	.041	.067	.997	.320	$F = 21.132$
Rehearsal	.015	.042	.025	.352	.725	$Sig = .000$
Goal-setting	.071	.040	.135	1.772	.078	
Self-compensation	.199	.038	.362	5.171	.000	
Self-criticism	-.002	.030	-.004	-.058	.954	
Constructive thinking	.117	.039	.199	2.977	.003	

4. 총괄 및 고안

Manz와 Sims¹⁵⁾는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하거나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거나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아비판이나 처벌을 하는 등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셀프리더십의 국내연구^{3,13,16)}들을 보면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성과 등의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여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44점이었고, 구성요인별로 보면, 자기보상 3.82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건설적 사고 3.12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치과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⁷⁾에서 셀프리더십의 전체 평균 점수 3.51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다소 낮았으며, 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에서 셀프리더십이 3.56점으로 조사된 것보다는 다소 낮게 측정되었으나 자기보상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건설적 사고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9점이었고, 적극적 대처로 문제중심 대치는 3.14점, 사회적 지지 대치는 3.38점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로 소망적 사고 대치는 3.69점, 정서중심 대치는 2.9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¹⁾의 연구결과에서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았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문제중심 대처보다는 소망적 사고 대처로 소극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의 차이를 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전

공만족도와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동기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성적에 맞춰서'라고 답한 군에서 3.79점, '적성에 맞아서'라고 답한 군에서 3.7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6개 구성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자기존중, 자기보상,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6개의 구성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문제중심 대처법, 소망사고 대처법 간에는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 구성요인 중 자기비판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사회지지 대처법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lkman과 Lazarus¹⁴⁾의 연구결과와 사람들이 대처행동을 할 때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대처 행동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유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대처행동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대처 행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¹⁾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기대, 자기보상,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6개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보상과 건설적 사고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자기보상과 건설적 사고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상과 건설적 사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학생들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치위생과 2학년 학생만을 조사한 결과로 전체 학생들의 결과라고 보기엔 다소 한계가 있어, 추후 연구대상을 확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치과위생사로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해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여 향후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 경기지역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셀프리더십으로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6개 영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소망적사고 대처 4개 영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전체 평균점수는 3.34점이었고, 하위요인별 자기보상 3.84점, 자기기대 3.57점, 리허설 3.44점, 목표설정 3.42점, 자기비판 3.30점, 건설적 사고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9점이었고, 적극적 대처로 문제중심 대처는 3.14점, 사회적지지 대처는 3.38점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로 소망적 사고 대처는 3.69점, 정서중심 대처는 2.95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 ($p=.001$)와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4$).
4. 셀프리더십의 6개 구성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문제중심 대처법, 소망사고 대처법 2개 구성요인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5. 셀프리더십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보상($p=.000$)과 건설적 사고($p=.003$)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 후 겪게 될 다양한 스트레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박민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석사학위논문]. 대구:경북대학교 대학원;2009.
2. 서문경애.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개인 성과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005;11(1):45-58.
3. 김용일.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숭실대학교 대학원;2008.
4. Zimmerman BJ, Martinez-Pons M. Student difference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 Educ psychol 1990;82(1):51-59.
5. 민소영, 정승교.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2006; (3):299-307.
6. 남용옥, 장종화, 김선숙. 임상실습 수행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2;2(2):145-158.
7. 이정화, 전은숙.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09;9(1):137-143.
8. 황선희. 치위생과 학생이 교외 임상 실습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2004.
9. 김현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대구: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10. 홍수민, 한지형, 김희경, 안용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신체화 경향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9;9(2):219-224.
11. 전주연, 이현옥, 김 진.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표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2007;7(2):89-96.
12. Manz C. Helping yourself and others to master self-leadership. Supervisory Management 1991;36(11):8-9.

13. 김한성: 중학교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2002.
14. Folkman S, Lazarus R.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 1985;48:150-170.
15. Manz C, Sims HP. Business without boss-es-how self managing team are building high-performing companies. New York: John Wily & Sons;1995.
16. 김연선: 셀프리더십이 팀웍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세종대학교 대학원;2008.
17. 장종화, 이영수, 문예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3):395-404.